

# 남매승별가라



### [해제]

「남매상별가(男妹相別歌)라」는 남매간의 이별을 잘 표현한 가사 작품이다. 본 가사는 두루마리에 세로로 필사되어 있으며 한 줄에는 25~39자의 한글로 기록되어 총 55행 1615자의 본사와 3행 32자의 부기(附記)로 되어 있다. 작자는 부기에 “올 정월망간 동식서라”하여 ‘동식’이라는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문투는 한문투를 바탕으로 한글투를 적절하게 섞었다. 내용은 “무정세월 여류하여 춘왕정월 다시왔네”로 시작하여 “일필회지 써여닌니 송별곡이 되었구나”라고 끝을 맺어 남매간 서로 이별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즉 누이의 결혼은 남혼여가(男婚女嫁)로 당연하지만 이별은 국상을 당한 것처럼 슬프다고 한다. 이는 남매가 이별함으로 서로 잊지 못하는 마음을 “송스불견 우리남미 야야경경 불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부기(附記)는 “글시모양 제제 남시럽습 그나마 놀너보시압 이만숫치라”라고 하여 겸사로 맺고 있다.

### [원문]

#### 남매송별가라

무정세월 여류하여 춘왕정월 다시왔네  
춘풍이 화창하니 만화방초 춤을추고  
기화요초 난만하니 봉접의 세계로다  
솟춘피여 화산되고 입흔피여 청산이라  
삼철리 우리강슨 오색단장 출란하네  
형화도화 만발하니 온천하의 춘광일세  
사시중의 가절이요 일연중의 양신이라  
이런중에 초로인생 원하난이 오복이라  
슬프다 벗임니야 이니말삼 들어보소  
부유갓튼 이건곤의 초로갓튼 우리인생  
세승사가 부운갓고 구심춘광 덧업서라  
혁혁하든 우리가운 일조일석 식진하네  
고진감리 분명하고 흥진비리 완연하네  
가운이 이러하네 오복인을 여구할가  
태총의 무근오곡 바리도다 거러간나  
빈단지만 남고난니 오중쫓추 비난구나  
제물리 물너간니 스람쫓차 요수하고  
스람이 요수하네 조군이 부족하여  
딤딤독신 창망하네  
우리남미 출싱하자 가세가 적빈하네  
가운의 타시인가 생시을 못탓난가  
이니나히 두술되즈 선고을 조실하네  
초목이다 함루하고 일월리 무광하네  
슬프도다 우리몸은 전칭의 무슴죄로  
인간의 태이나서 부조유친 모르난고

가운도 창낙하고 팔조도 기박하다  
다운나문 서너식구 구곡간중 물리되니  
눈물리 모였시면 한강수가 안이리며  
한심이 모였시면 동남풍이 안이될가  
집이라 허난것슨 찬바람이 절노나니  
이왕스을 싱각하니 눈물흘너 말못할세  
그런중의 우리편모 일편단심 송죽이라  
천수만한 가득하여 불별업시 늘것고나  
일구월심 한이되고 연심세구 못서리되  
그은덕을 갑조하니 복두태슨 가벼압고  
말리총히 앓타오나 불초성심 가지도다  
빅골난망 그은혜을 결초보은 하여보식  
우리연광 멋칠하고 숨오이팔 분명하니  
혈혈한 우리남미 정인들 범연할가  
일일평균 십이시의 썩니불디 잇섯시며  
스시스철 오래되면 눈씨불씨 잇섯든가  
침상편시 춘몽중의 꿈이리면 싸울는가  
천츄만디 지니가면 우리인정 변할손가  
송전이 벽히틴들 우리정말 쓴어지며  
벽히가 상전틴들 남미정분 이즈릭가  
아초이게 원말인고 호스다마 분명하니  
우리송별 엇진일고 출가란말 비춤하다  
이말을 득고난니 여광여취 황홀하고  
히황초황 정신업니  
전후스을 생각하니 흘으난니 눈물이요  
적시난니 옷깃일세 숨강팔조 버린후의  
남여유별 적실하고 예절육례 마련하니  
남훈여가 분명하다  
스히팔방 오는통흔 이니간중 다씩인다  
머지안은 지척이셔 천생연분 닳타난니  
천우신조 이안이며 천정비필 안일년가  
빅연동거 링세하니 금석가약 분명하니  
일윤디스 남훈여가 고법의 정한비라  
니아모리 서러하면 정한일얼 어이할고  
새월도 무정하고 고법도 원수로다  
일양길신 택일하니 만복초례 갓가웠니  
굿씩가 언으썩고 임신구월 이십팔일  
씩는이리 좃컷만은 업는거시 원술너라

만복초례 순성하니 원앙쪼이 비필이라  
외모가 수려하니 덕중부의 굿틀이요  
선풍도골 능능하니 군주의 지혜로다  
화촉동방 김헌방의 초면수작 가소롭다  
송직군이 즙이든니 정회도 김헛구나  
마승철리 오신가임 덕접세도 초박하다  
불성모양 남시럽고 금전도 야속하니  
무정히 가는세월 우리이기 원수로다  
야금야금 오는이별 성큼성큼 오는이별  
고성덕책 꾸지브면 겁을니여 안이올가  
익고지고 슬피울면 보드시릭 안이올가  
석송의 제물노써 비러보면 안이올가  
소진중의 구번으로 달니보면 안이올가  
일낙서손 너머간니 속수무책 가련하다  
개명성이 들어온니 감히든짐 놀나씩니  
동천쪼일 빗치운니 일촌간중 익워닌다  
일출문정 써나간니 고방산도 전송하고  
문전의 부용봉이 이별봉이 덕엇구나  
서를시고 서를시고 남익이별 서를시고  
천지송을 당횃시면 이예셔 더설오며  
국송을 당횃신들 여기의 더할손가  
비희중의 흐른눈물 마를씨가 업는구나  
이니마음 이를진딘 가는인들 엇더허리  
심육연 즈란간장 오날날 다씩인다  
으든아우 적막하니 별히도 김헛구나  
일구월심 석을싸라 경경지히 불망이라  
말리청천 저명월은 가가충전 빗취것만  
우리는 어이하여 서로볼줄 모르난고  
나래도든 학이되면 두나래 훨신피고  
구만장천 넓피나라 너울너울 가보것만  
야속할스 이니몸은 미물만 못하온니  
운림비쵸 부러하니  
송스불견 우리남익 야야경경 불망이라  
천봉만학 막히는가 소식쫓차 돈절하니  
초수오산 가렸도다  
경세우 경연하니 회포싸여 태산이라  
이갓치 싸인회포 허월하시 푸러볼고  
명연이라 춘승월의 쫓도피고 입피피여

알랑알랑 고기적이고 노래불너 농춘할세  
곳본나비 춤추드시 우리서로 송봉하여  
만단정회 푸러보쇠  
침침칠야 오날밤의 가사한장 지여보자  
슴상연지 먹을가라 오로필 조흔붓세  
일필회지 써여닌니 송별곡이 되엇구나

글시모양 궤궤 남시렵습 그나마  
놀너보시압 이만숫치라  
올 정월망간 동식서라

## [현대역]

남매상별가(男妹相別歌)라

무정세월(無情歲月) 여류(如類)하여 춘왕정월(春王正月)1) 다시 왔네  
 춘풍(春風)이 화창(和暢)하니 만화방초(萬花芳草)2) 춤을 추고  
 기화요초(琪花瑤草)3) 난만(爛漫)하니 봉점(蜂蝶)의 세계로다  
 꽃은 피어 화산(花山) 되고 잎은 피어 청산(靑山)이라  
 삼천리 우리 강산 오색단장(五色端裝)4) 찬란하네  
 행화도화(杏花桃花)5) 만발하니 온 천하에 춘광(春光)일세  
 사시(四時) 중에 가절(佳節)이요 일년(一年) 중에 양신(良辰)6)이라  
 이런 중에 초로인생(草露人生)7) 원(願)하는 이 오복(五福)8)이라  
 슬프다 벗님네야 이내 말씀 들어보소  
 부유(浮遊)9) 같은 이 건곤(乾坤)10)에 초로(草露) 같은 우리 인생  
 세상사가 부운(浮雲) 같고 구십춘광(九十春光)11) 덧없어라  
 혁혁(赫赫)12)하던 우리 가운(家運) 일조일석(一朝一夕)13) 쇠진(衰盡)14)하니  
 고진감래(苦盡甘來)15) 분명하고 흥진비래(興盡悲來)16) 완연(宛然)하네  
 가운(家運)이 이러하니 오복(五福)인들 여구(如舊)17)할까  
 태창(太倉)18)에 묵은 오곡(五穀) 발이 돌아 걸어갔나  
 빈 단지만 남고나니 오창(五倉)19)조차 비는구나  
 재물(財物)이 물러나니 사람조차 요수(夭壽)20)하고  
 사람이 요수(夭壽)하니 자군이 부족하여  
 대대(代代) 독신(獨身) 창망(悵惘)21)하네  
 우리 남매(男妹) 출생(出生)하자 가세(家勢)가 적빈(赤貧)22)하니  
 가운(家運)의 탓인가 생시(生時)를 못 댄는가  
 이내23) 나이 두 살 되자 선고(先考)24)를 조실(早失)25)하니  
 초목이 다 함루(含淚)26)하고 일월(日月)이 무광(無光)하네  
 슬프도다 우리 몸은 전생(前生)에 무슨 죄(罪)로  
 인간에 태어나서 부자유친(父子有親)27) 모르고  
 가운(家運)도 창락(蒼落)28)하고 팔자(八字)29)도 기박(奇薄)하다  
 다문다문30) 서너 식구(食口) 구곡간장(九曲肝腸)31) 우리되네  
 눈물이 모였으면 한강수(漢江水)32)가 아니리며33)  
 한숨이 모였으면 동남풍(東南風)이 아닐런가  
 집이라 하는 것은 찬바람이 절로 나네  
 이왕사(已往事)34)를 생각하니 눈물 흘러 말 못할세  
 그런 중에 우리 편모(偏母) 일편단심(一片丹心) 송죽(松竹)이라  
 천수만한(天壽萬恨)35) 가득하여 분별없이 늙었구나  
 일구월심(日久月深)36) 한(恨)이 되고 연심세구(年深歲久)37) 못 서리네  
 그 은덕(恩德)을 갚자 하니 북두(北斗) 태산(泰山)38) 가벼웁고

만리(萬里) 창해(滄海) 알오나 불초(不肖) 성심(誠心) 가지도다  
 백골난망(白骨難忘)38) 그 은혜(恩惠)를 결초보은(結草報恩)39) 하여보세  
 우리 연광(年光)40) 몇일하고 삼오이팔(三五二八)41) 분명하네  
 혈혈(孑孑)42)한 우리 남매(男妹) 정(情)인들 범연(泛然)할까  
 일일(一日) 평균(平均) 십이시(十二時)에 성내볼 때 있었으며  
 사시사(四時四)철 오래되면 눈 떠볼 때 있었든가  
 침상(枕上) 편시(片時)43) 춘몽(春夢) 중에 꿈이라면 싸울런가  
 천추만대(千秋萬代)44) 지나가면 우리 인정(人情) 변할슨가  
 상전(桑田)이 벽해(碧海)45)된들 우리 정(情)이 끊어지며  
 벽해(碧海)가 상전(桑田)된들 남매(男妹) 정분(情分) 잊으리까  
 아차 이게 웬 말이고 호사다마(好事多魔)46) 분명(分明)하네  
 우리 상별(相別) 어쩐 일고 출가(出嫁)47)란 말 비참(悲慘)하다  
 이 말을 듣고 나니 여광여취(如狂如醉)48) 황홀(恍惚)하고  
 회환창황(回還愴愴)49) 정신 없네  
 전후사(前後事)를 생각하니 흐르나니 눈물ियो  
 적시나니 옷깃일세 삼강팔조(三綱八條)50) 벌린 후에  
 남녀유별(男女有別) 적실(的實)하고 예절(禮節) 육례(六禮)51) 마련하니  
 남혼여가(男婚女嫁)52) 분명하다  
 사해팔방(四海八方)53) 오는 통혼(通婚) 이내 간장(肝腸) 다 썩인다  
 멀지 않은 지척(咫尺)에서 천생연분(天生緣分)54) 나타나니  
 천우신조(天佑神助)55) 이 아니며 천정배필(天定配匹)56) 아닐런가  
 백년동거(百年同居)57) 맹세하니 금석가약(金石佳約)58) 분명하네  
 인륜대사(人倫大事) 남혼여가(男婚女嫁)59) 고법(古法)에 정한 바라  
 내 아무리 설위하면 정한 일을 어이 할꼬  
 세월도 무정(無情)하고 고법(古法)도 원수(怨讐)로다  
 일양길신(日良吉辰)60) 택일(擇日)하니 만복초례(萬福醮禮)61) 가까웠네  
 그 때가 어느 땐고 임신(壬申) 구월(九月) 이십팔일(二十八日)  
 때는 이리 좋건마는 없는 것이 원수로다  
 만복초례(萬福醮禮) 순성(順成)하니 원앙조(鴛鴦鳥)62)의 배필(配匹)이라  
 외모(外貌)가 수려하니 대장부(大丈夫)의 곁틀ियो  
 선풍도골(仙風道骨)63) 능름하니 군자의 지혜로다  
 화촉동방(華燭洞房)64) 깊은 밤에 초면수작(初面酬酌)65) 가소롭다  
 상직곤66)이 잠이 드니 정회(情懷)도 깊었구나  
 마상천리(馬上千里) 오신 가(佳)님67) 대접세도(待接勢道)68) 초박(超薄)69)하다  
 불성(不誠) 모양 남시럽고70) 금전(金錢)도 야속(野俗)하네  
 무정히 가는 세월 우리에게 원수로다  
 야금야금 오는 이별(離別) 성큼성큼 오는 이별  
 고성대책(高聲大責)71) 꾸짖으면 겁을 내어 아니 올까

애고지고72) 슬피 울면 보기 싫어 아니 올까  
석송(石崇)73)의 재물(財物)로써 빌어 보면 아니 올까  
소진장의(蘇秦張儀)74) 구변(口辯)으로 달래 보면 아니 올까  
일락서산(日落西山)75) 넘어 가니 속수무책(束手無策)76) 가련(可憐)하다  
계명성(鷄鳴聲)77)이 들려오니 깊이 든 잠 놀라 깨네  
동천조일(東天朝日)78) 비치우니 일촌간장(一寸肝腸)79) 에워낸다80)  
일출문정(日出門庭)81) 떠나가니 고향산도 전송(餞送)하고  
문전(門前)에 부용봉(芙蓉峯)이 이별봉(離別峯)이 되었구나  
서럴시고82) 서럴시고 남매(男妹) 이별(離別) 서럴시고  
천지상83)을 당했으면 이보다 더 서럴까  
국상(國喪)을 당했던들 여기에 더할쏜가  
배회(徘徊) 중에 흐른 눈물 마를 때가 없는구나  
이내 마음 이를진댄84) 가는 인(人)들 어떠하리  
십육년(十六年) 자란 간장(肝腸) 오늘날 다 썩인다  
울던 아우 적막(寂寞)하니 별회(別懷)85)도 깊었구나  
일구월심(日久月深)86) 때를 따라 경경지회(耿耿之懷)87) 불망(不忘)이라  
만리청천(萬里靑天)88) 저 명월(明月)은 가가창전(家家窓前)89) 비추건만  
우리는 어이하어 서로 볼 줄 모르는고  
나래 돋은 학(鶴)이 되면 두 나래 훨씬90) 펴고  
구만장천(九萬長天)91) 높이 날아 너울너울 가보건만  
야속(野俗)할사 이내 몸은 미물(微物)만 못하오니  
운림비조(雲林飛鳥)92) 부러하네  
상사불견(相思不見)93) 우리 남매 야야경경(夜夜耿耿)94) 불망(不忘)이라  
천봉만학(千峰萬壑)95) 막혔는가 소식조차 돈절(頓絕)96)하니  
초수오산(楚水吳山)97)가렸도다  
경세(經歲) 우(又) 경년(經年)하니98) 회포(懷抱) 쌓여 태산이라  
이 같이 쌓인 회포(懷抱) 하월하시(何月何時)99) 풀어볼꼬  
명년(明年)이라 춘삼월(春三月)에 꽃도 피고 잎이 피어  
알랑알랑100) 고개 젓고 노래 불러 농춘(弄春)할새  
꽃 본 나비 춤추듯이 우리 서로 상봉(相逢)하여  
만단정회(萬端情懷)101) 풀어보세  
침침칠야(沈沈漆夜)102) 오늘 밤에 가사(歌詞) 한 장 지어 보자  
삼상연지(三湘硯池)103) 먹을 갈아 오로필(五老筆)104) 좋은 붓에  
일필휘지(一筆揮之) 써서 내니 상별곡(相別曲)이 되었구나



[각주]

- 1) 춘왕정월(春王正月) : 『춘추(春秋)』의 첫머리에 나오는 ‘은공(隱公) 원년 봄, 천자가 쓰는 역(曆)으로 정월’이라는 말을 가리킨다. 주나라 왕이 쓰는 달력으로 정월.
- 2) 만화방초(萬花芳草) : 온갖 꽃과 향기로운 풀.
- 3) 기화요초(琪花瑤草) : 옥같이 고운 풀에 핀 구슬같이 아름다운 꽃.
- 4) 오색단장(五色端裝) : 여러 가지 빛깔로 곱게 꾸밈.
- 5) 행화도화(杏花桃花) : 살구꽃과 복숭아꽃.
- 6) 양신(良辰) : 좋은 시절이나 계절.
- 7) 초로인생(草露人生) :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은 인생이라는 뜻으로,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8) 오복(五福) : 유교에서 이르는 다섯 가지의 복. 보통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을 이르는데, 유호덕과 고종명 대신 귀(貴)함과 자손이 중다(衆多)함을 꼽기도 한다.
- 9) 부유(浮遊) : 행선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님.
- 10) 건곤(乾坤) : 건방(乾方)과 곤방(坤方)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1) 구십춘광(九十春光) : 석 달 동안의 화창한 봄 날씨. 석 달의 봄.
- 12) 赫赫(赫赫) : (업적(業績)·공로(功勞) 따위가) 빛나는 모양.
- 13) 일조일석(一朝一夕) : 하루 아침과 하루 저녁이란 뜻으로, 짧은 시일을 이르는 말.
- 14) 쇠진(衰盡) : 점점 쇠퇴하여 바닥이 남.
- 15) 고진감래(苦盡甘來) :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
- 16) 흥진비래(興盡悲來) :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 세상일은 순환되는 것임을 이르는 말.
- 17) 여구(如舊) : 모양이나 상태가 옛날과 같다.
- 18) 태창(太倉) : 광흥창. 고려 시대에, 백관(百官)의 녹봉(祿俸)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 19) 오창(五倉) : 오장(五臟).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의 다섯 가지 내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
- 20) 요수(夭壽) : 요절(夭折). 젊은 나이에 죽음.
- 21) 창망(悵惘) : 근심과 걱정으로 경황이 없다.
- 22) 적빈(赤貧) : 몹시 가난함.
- 23) 이내 : ‘나의’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 24) 선고(先考) : 선친.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이르는 말.
- 25) 조실(早失) : 어려서 잃음.
- 26) 함루(含淚) : 눈물을 머금음.
- 27) 부자유친(父子有親) : 오륜(五倫)의 하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리는 친애에 있음을 이른다.
- 28) 창락(蒼落) : 늙어 시들어 떨어짐.
- 29) 팔자(八字) : 사람의 한평생의 운수. 사주팔자에서 유래한 말로, 사람이 태어난 해와 달과 날과 시간을 간지(干支)로 나타내면 여덟 글자가 되는데, 이 속에 일생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본다.
- 30) 다문다문 : 시간적으로 잦지 아니하고 좀 드문 모양.
- 31) 구곡간장(九曲肝腸) : 굽이굽이 서린 창자라는 뜻으로, 깊은 마음속 또는 시름이 쌓인 마음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32) 한강수(漢江水) : 한강의 물.
- 33) 아니리며 : 아닐 것이며.
- 34) 이왕사(已往事) : 이왕지사(已往之事)로 이미 지나간 일.
- 35) 천수만한(天壽萬恨) : 이것저것 슬퍼하고 원망함. 또는 그런 슬픔과 한.
- 36) 일구월심(日久月深) :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 간다는 뜻으로, 무언가 바라는 마음이 세월(歲月)이 갈수록 더해짐을 이르는 말.
- 37) 연심세구(年深歲久) : 세월(歲月)이 매우 오래.
- 38) 북두(北斗) 태산(泰山) : 태산(泰山)과 북두칠성을 아울러 이르는 말. 어떤 분야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39) 결초보은(結草報恩) :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
- 40) 연광(年光) : 세월(歲月). 젊은 나이. 변하는 사철의 경치.
- 41) 삼오이팔(三五二八) : 15세에서 18세 즈음.
- 42) 혈혈(子子) : 의지할 곳이 없이 외롭다.
- 43) 편시(片時) : 잠시.
- 44) 천추만대(千秋萬代) : 긴 세월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라는 뜻으로, 후손 만대에 이르기까지의 긴 시간을 이르는 말.
- 45) 상전벽해(桑田碧海) :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46) 호사다마(好事多魔) :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음. 또는 그런 일이 많이 생김.
- 47) 출가(出嫁) : 처녀가 시집을 감.
- 48) 여광여취(如狂如醉) : 기빠서 미친 듯도 하고, 취한 듯도 함.
- 49) 회환창황(回還愴怳) : 왔다갔다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 50) 삼강팔조(三綱八條) : 『대학』의 가르침. 삼강령은 세 가지 강령으로 명명덕(明明德), 신민(新民), 지어지선(止於至善)을 이르며, 팔조목(八條目)은 여덟 가지 조목으로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를 이른다.
- 51) 예절(禮節) 육례(六禮) : 유교 사회에서 행하는 여섯 가지 큰 의식.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향례(鄉禮), 상견례(相見禮)을 이른다.
- 52) 남혼여가(男婚女嫁) : 아들은 장가들고 딸은 시집간다는 뜻으로, 자녀의 혼인을 이르는 말.
- 53) 사해팔방(四海八方) : 온 세상.
- 54) 천생연분(天生緣分) : 하늘이 정하여 준 연분.
- 55) 천우신조(天佑神助) :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 또는 그런 일.
- 56) 천정배필(天定配匹) : 하늘에서 정(定)해진 배필(配匹).
- 57) 백년동거(百年同居) : 젊은 남녀가 부부가 되어 평생을 같이 지내는 것.
- 58) 금석가약(金石佳約) : 젊은 남녀가 부부가 되어 평생을 같이 지낼 것을 굳게 다짐하는 아름다운 언약
- 59) 남혼여가(男婚女嫁) : 아들은 장가들고 딸은 시집간다는 뜻으로, 자녀의 혼인을 이르는 말.
- 60) 일양길신(日良吉辰) : 좋은 날과 좋은 때.
- 61) 만복초례(萬福醮禮) : 전통적으로 치르는 혼례식.

- 62) 원앙조(鴛鴦鳥) : 원앙새
- 63) 선풍도골(仙風道骨) : 신선의 풍채와 도인의 골격이란 뜻으로, 남달리 뛰어나고 고아(高雅)한 풍채를 이르는 말.
- 64) 화촉동방(華燭洞房) : 신혼 부부(夫婦)가 첫날밤을 지내는 방(房).
- 65) 초면수작(初面酬酌) : 술잔을 서로 주고받음.
- 66) 상직꾼(上直-) : 상직파(上直婆)(집 안에서 부녀(婦女)의 시중을 드는 늙은 여자).
- 67) 가(佳)님 : 아름다운 님으로 여기서는 ‘신랑’을 가리킴.
- 68) 대접세도(待接勢道) : 정치상의 권세를 예로써 대함.
- 69) 초박(超薄) : 매우 얇박하다.
- 70) 남스럽고 : 남남 사이처럼 느껴져서 서먹서먹하고.
- 71) 고성대책(高聲大責) : 큰소리로 몹시 꾸짖음.
- 72) 애고지고 : 소리 내어 몹시 슬프게 우는 모양.
- 73) 석송(石崇) : 중국 남북조시대 진(晉) 나라의 부호(富豪). 형주 자사(荊州刺史) 등을 지냈으나, 팔왕(八王)의 난(亂) 때 조왕(趙王) 사마륜(司馬倫)에게 살해됨.
- 74) 소진장의(蘇秦張儀) : 소진과 장의. 말을 잘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중국 戰國時代(전국시대)의 謀士(모사) 소진, 장의처럼 言辯(언변)이 좋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
- 75) 일락서산(日落西山) : 해가 서산에 진다는 뜻.
- 76) 속수무책(束手無策) :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함.
- 77) 계명성(鷄鳴聲) : 닭의 울음소리.
- 78) 동천조일(東天朝日) : 아침에 동쪽 하늘의 해. 날
- 79) 일촌간장(一寸肝腸) : 한 토막의 간과 창자라는 뜻으로, 주로 애달프거나 애가 탈 때의 마음을 형용(形容)하여 이르는 말.
- 80) 에워낸다 : ‘에다’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다”는 뜻.
- 81) 일출문정(日出門庭) : 해가 떠서 대문이나 중문 안에 있는 뜰에 비추다.
- 82) 서럴시고 : 서럽구나.
- 83) 천지상 : 친지상(親知喪)과 천지상(天地喪)으로 볼 수 있다. 후자는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이거나 국상(國喪)을 말하는데 다음에 또 국상이 나왔으므로 여기서는 전자로 보는 것이 내용상으로 더 적절하다.
- 84) 이를진댄 : 말할진댄.
- 85) 별회(別懷) : 이별할 때에 마음속에 품은 슬픈 회포.
- 86) 일구월심(日久月深) :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 간다는 뜻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더함을 이르는 말.
- 87) 경경지회(耿耿之懷) : 마음에 잊히지 아니한 생각.
- 88) 만리청천(萬里青天) : 머나먼 푸른 하늘.
- 89) 가가창전(家家窓前) : 집집마다 창앞에.
- 90) 훨썬 : 정도 이상으로 넓게 벌어지거나 열린 모양.
- 91) 구만장천(九萬長天) : 구만리장천. 아득히 높고 먼 하늘
- 92) 운림비조(雲林飛鳥) : 구름 낀 숲을 나는 새.
- 93) 상사불견(相思不見) :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함.

- 94) 야야경경(夜夜耿耿) : 밤마다 마음에 잊지 않음.
- 95) 천봉만학(千峰萬壑) : 수많은 산봉우리와 산골짜기.
- 96) 돈절(頓絕) : (소식(消息)이나 편지(便紙) 따위가) 끊어짐. 아주 끊어짐.
- 97) 초수오산(楚水吳山) : 賈至의 '春思'에 “楚水吳山道路難(초수오산도로난) 초나라 오나라는 가는 길도 험하구나”라는 말이 있다.
- 98) 경세우(經歲又) 경년(經年)하니 : 세월이 흐르고 또 해가 바뀌니.
- 99) 하월하시(何月何時) : 어느 달 어느 때.
- 100) 알랑알랑 : 작고 긴 물건 따위가 요리조리 자꾸 흔들리는 모양.
- 101) 만단정회(萬端情懷) : 온갖 정과 회포.
- 102) 침침칠야(沈沈漆夜) : 아주 가까운 거리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두운 밤.
- 103) 삼상연지(三湘硯池) : 이백의 '五老峰爲筆' 시에 “三湘作硯池(삼상을 베투로 삼아서)”라는 구절이 있음.
- 104) 오로필(五老筆) : 오로봉으로 만든 붓. 이백의 '五老峰爲筆' 시를 이용함.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